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420호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납득 못해”

4·16연대 등, 대법 선고 직후 규탄 기자회견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해경 지휘부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

의 공동상황실장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얻어졌다”고 비판

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이철민 기자

Photo News



‘오늘은 제66주년 112의 날’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66주년 112의 날 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이선균 출입 룸살롱 종업원도 조사

재벌3세와 관계 추궁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권씨가 드나든 해당 유흥주점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으로 이업소의 실장(29·여)은 이미 구속됐다.

A씨는 연예인 연루 마약 사건으로 지난달 형사 입건된 피의자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날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입건 전 조사를 받는 재벌가 3세 B씨 등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B씨 등 내사자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소환했다”면서도 “진술 등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 등을 입건했다.

B씨뿐만 아니라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모두 5명도 마약 투약 의혹이 있다고 보고 내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이씨는 오는 4일 경찰에 재출석하며 권씨는 오는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 배영철 기자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압수수색…수수의원 수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수수의원을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자금 살포 과정에 관련한 혐의로도 조사받았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봉투 수수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에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과 허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한다.

2021년 4월 28일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회의 나왔던 사람이 그 둘(이성만·허종식)이니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돈봉투 살포를 모의한 것으로 지목된 같은 해 4월 26일 ‘캠프 기획회의’에서 두 의원이 윤 의원의 금품 살포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그간 주춤했던 수수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임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물과 국회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의원들의 동선 등을 교차 검증하며 구체적인 돈봉투 전달 경로를 추적하고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근 재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송원기 기자



우정사업본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與 ‘서울 키우기’ 여론전…특별법 등 속도전으로 野 외통수 노려

野 향해 “동문서답 말고 찬반 명확히 밝히라” “김포시민 모욕” 집중포화

국민의힘은 2일 ‘김포 서울 편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특별법 발의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 내용은 담은 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중앙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당원협의회별로 수도권 전역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로 편입하는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당내 담당 기구 발족에 입법 준비, 여론조사까지 동시에 발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총선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 민심 공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뚜렷하게 반대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수’를 노리는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이날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 때문이라는 ‘명분’을 일제히 부각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은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윤재우 원내대표는 “심지어 애당 몇몇 인사들은 예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결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낫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반대로 간다는 지적

에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홍철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 이러한 취지의 지적에 “수도권이 어떻게 지방을 소멸시키나. 수도가 잘 되면 지방이 소멸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날 발족한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입법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후 원하는 지자체가 나올 경

우 추가로 특별법을 내는 형태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특히 명칭을 김포시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을 통해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하고 있다. 하남, 의왕·과천 등 일부 당협에서는 설문 조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위를 구성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봉, 중랑, 노원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외곽의 반발이 커지면서 표심 이탈을 가속해 선거 전략에서 ‘マイ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

날 CBS 라디오에서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김포구가 됐을 때 가져오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어줘야 하는 예산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며 “서울과 김포 시민, 경기도와 갈등하는 방식이 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오세훈,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400만원 기부…모금 동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했다.

재단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오 시장은 캠페인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성의를 보태겠다며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중심으로 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기념관 마련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

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법조인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추진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서울시 산하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공과를 균형 있게 짚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관 건립 기금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 박소희 기자

尹대통령 “재임중 R&D예산 많이 늘릴것…원천·첨단기술에 선제투자”

‘SBS D 포럼’ 대담…“R&D 예산 똑같이 나눠주면 수당 보조밖에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과 관련해 “재임 중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녹화해 이날 ‘SBS D 포럼’(SDF)에서 공개된 대담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예산이 20조 원이 30조 원으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천만원

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예산 항목과 취지에 충실히 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R&D 예산) 구조조정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순방 성과에 대한 질문에 “정상 외교는 전부 우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경제 협약 중심으로 한다”며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줘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중의 기술 패권 다툼과 잇단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에는 “글로벌 중주 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확

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미관계는 동맹을 더욱 내실을 다지고,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체제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공급망, 안보에 치중을 해왔다”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결국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전략적 틀을 만들어서 상대 국가와 전략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과 관련,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활용돼야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최준영 기자

BTS 정국, 美 NBC ‘지미 팔런쇼’·‘투데이쇼’ 출연



그램 ‘투데이 쇼’(TODAY)의 ‘시티콘서트 시리즈’(CitiConcert Series)에 각각 출연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일 밝혔다.

정국이 ‘지미 팔런쇼’에 나오는 것은 2021년 7월 방탄소년단으로 출연한 뒤 약 2년 4개월 만이다. 그는 이번에 특별 무대에 오르고 진행자 지미 팔런의 인터뷰에 응한다.

정국은 다음 날인 8일 투데이 플라자에서 ‘시티콘서트 시리즈’의 하나로 단독 야외 공연도 펼친다. 그가 ‘투데이 쇼’에 출연하는 것은 2020년 9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정국은 7일 NBC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랑 지미 팔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과 8일 아침 프로

/ 황수진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피해자 15명·피해액도 19억원 넘어”

“수사 진행 따라 피해 규모 늘어날 수도”…이르면 내일 영장심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 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



체포된 전청조

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

니엘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의

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전씨의 범행에 남씨가 공모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들어왔다.

남씨는 전씨에게 속았다는 지난달 31일 전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씨는 의혹이 확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전씨의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적인 중대범죄 법정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검장·남양주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 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하고 부폐재산몰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대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9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준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결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 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다 숨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우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1~3심 전부 무죄…“최선 지휘 못했다고 죄 못 물어”

허위공문서 관련자만 집행유예…‘세월호 직접책임’ 형사사건 마무리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했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 송진영 기자

‘전세사기 의혹’…완주서 보증금

못받게 된 세입자들, 경찰 고소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뒤 이를 남부하지 않는 등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해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 임대

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A씨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씨 등을 고소했다.

/ 조유진 기자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촌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해 ‘경제성장을 3% 달성’ 추진”

복귀 열흘만에 기자회견…尹정부 기조 맞서 ‘확장재정 성장론’ 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을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을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씨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측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측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인 그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을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예산 정국 개막에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명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복귀 이후 열흘만으로, 회견문만 6천자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 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폐작”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도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

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

면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

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3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를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이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그냥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하지 말지 뭐’ 식으로 대훈란을 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훑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하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다”면서 “구호나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 송원기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與,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위원장에 부산 5선 조경태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룬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도원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 위원회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가칭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위’…‘메가서울’ 구상 본격화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

/ 안정민 기자

與 “민주·이재명,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 뿌리치려 해”

野의원들 ‘노록 약수’에 “기본 인성과 예절이 먼저”

홍석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인성, 기본예절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수를 청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노록 약수하거나 짐짓어 손을 내밀지 않고 외면합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그만두셔야죠” 했답니다. 개발들은 독립투사라도 된 양 김용민을 찬양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있어야 합니다. 기본인성과 기본예절이 있는 민주당과 의원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홍석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된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심모사라고 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윤 대통령과 시정연설을 깨어내리기에 바쁘다”며 “며칠 감추었던 ‘정쟁 DNA’가 금세 몸 밖으로 뛰어나왔다. 보병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양념으로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을 애써 뿌리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민생을 위한 협치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 약수를 청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노록 약수’를 하는 사진을 올린 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인성, 기본예절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단다. 개발들은 독립투사라도 된 양 김용민을 찬양한다”면서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은 있어야 한다. 기본 인성과 기본예절이 있는 민주당과 의원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적었다.

/ 장병호 기자

구리시장도 서울시 편입 의지 피력

“구리시 발전에 도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편입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서울시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행정·재정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의

편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현재 경기도의 시 단위 기초 자치단체가 서울시의 구청보다 재정 집행 권한이 많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도 더 많이 위임받았다고 부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 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 등 종합규제 완화·해소를 이유로 추진했으나 이는 서울시 편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이달 중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회 나태근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천재일우’를 결코 놓치면 안 된다”며 “시민 의사를 확 인해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서울시 편입에 힘을 보탰다.

/ 홍순길 기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우리금융그룹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가지 사업과 우리금융미래재단 출범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가지 사업과 우리금융미래재단 출범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자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증권운용 우리자산운용 우리부동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금융그룹

1주일 만에 또 경찰 출석하는 이선균…이번에는 입 열까

2차 소환 핵심은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여부…3차 소환도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48)씨가 시야 검사 후 1주일 만인 오는 4일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

첫 소환 당시 마약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한 이씨가 2차 소환 때는 혐의와 관련한 입장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오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야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으나 그의 변호인은 “시야 검사를 받는 일정이었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때 다 진술하겠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이선균

고 말했다.

당일 이씨는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2차 소환 조사 때는 앞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이씨로부터 확인 받고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당일 조사의 핵심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이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궁한 뒤 진술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경찰로부

터 넘겨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2차 소환조사도 1~2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면 구체적인 종류까지 나오는 정밀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오는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아직 혐의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이씨와 달리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는 통상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피의자를 또 조사해야 한다”며 “두 피의자 모두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민 기자



JMS 정명석(왼쪽)

JMS 정명석 성폭행 신고 취하 회유한 치과의사 구속영장 재청구

정씨 성폭행·성추행 고소한 피해자만 21명

에이미(30)에 대한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가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홍콩 국적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 강형규 기자

검찰, ‘작통’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유통업자로부터 ‘작통’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인데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씨와 A 부장판사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시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짹통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사기 사건 선고 공판 때 법정에서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 서종익 기자

‘미국서 성폭행 미수 혐의’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입건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유연성(37)씨가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배드민턴 코치인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고,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경찰은 A씨가 귀국 후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3일 유씨를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 후 다시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은퇴한 뒤 현재는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민혁 기자



변호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스마트폰으로 미지원(Easy One) 앱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 1577-5900

경기도 소상공민의 위기극복 기회UP 특례보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대출금리 |
-2% 지원



|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최대 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이지원
(Easy One)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속타는 우크라…미국정가 찾아 “제발 더 지원해달라” 로비

탈환전 부진·이스라엘 전쟁·친트럼프파 득세에 ‘속앓이’



정세급변에 속타는 젤렌스키

뒷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는 설상가상으로 중동과 미국 정세가 급변하는 악재까지 닥쳤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마이크 존슨(공화)이 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점도 대형 악재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러시아와 태협을 통해 즉각 전쟁을 끝내도록 할 것이라는 재집권시 계획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 같은 기조에 동의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를 찾은 우크라이나 사절단이 현 상황을 판단해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관측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위해 로비하는 로만 티츠키우스키는 러시아가 하마스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맞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새로운 악의 죽’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사절단이 이번 워싱턴DC 방문 때 내놓은 지원 요청을 구축할 시간을 준 게 패착이라는

체적으로 소개했다.

일단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器械(ATACMS)의 사거리 320km짜리 단단두 버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앞서 제공된 집속탄 버전보다 사거리가 긴 단단두 버전이 러시아가 보호 시설에 숨긴 항공기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단 제공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는 러시아군의 활공폭탄을 막을 새로운 방공체계도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를 느끼는 유럽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을 끌어낼 로비에 들어갔다.

한 유럽 로비단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방산업 경기가 부양돼 미국 내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재민 기자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게이 게임’ 반대 기자회견

홍콩 ‘게이 게임’이 국가안보 위협? 일각서 “금지하라” 주장

홍콩에서 오는 3일 개막하는 성소수자(LGBTQ)들의 스포츠 축제 ‘게이 게임’(Gay Games)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해당 행사를 주재하는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레지나 임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82년을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된 ‘게이 게임’의 직전 대회는 2018년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렸다.

홍콩 대회는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올해 11회를 맞은 게이 게임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게이 게임 조직위는 자신들이 정치적 단체가 아니며 어떠한 정치적, 입법적 변화를 응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포용성과 단합을 촉진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 홍정희 기자

중동과 미국 정세의 급변에 속이 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지속적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로비에 들어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관료, 군, 고문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사절단은 지난주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정계를 상대로 추가 군사원조를 촉구했다.

이 같은 로비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전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수도 키이우를 사수하고 동부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환전은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 겨울이면 유포시한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봄에 계획한 대반격을 미루다 여름에 시작해 러시아에 지뢰밭과 참호 여러 겹을 구축할 시간을 준 게 패착이라는

가자지구에 친척 간힌 미국인들, 국무부 상대 줄소송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가자지구에 고립된 자신들의 친척을 구출하는 데 소홀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랍계 미국인 시민권 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민을 대피시켜 보호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미국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세기와 크루즈선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피시켰다. 반면 가자

지구 거주 미국인들에게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문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안내했지만 전쟁 발발 25일 만인 1일에 대피가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의학연구원 나빌 알슈라파는 “대통령과 국무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라파 인근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라파 검문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에 미국인 400명, 그 가족을 포함해 1천명이 갇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문섭 기자

블랙핑크 리사 中 SNS 폐쇄…“19금” 파리 성인쇼 출연 탓?

“법·규정 위반 신고 접수” 웨이보 안내 문구…다른 멤버 계정은 유지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 ‘19금’ 성인 쇼에 출연한 후 그의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이 폐쇄됐다고 CNN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사의 웨이보 계정은 “법과 규정, 웨이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 계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폐쇄됐다.

CNN은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중국 인터넷 회사들은 자체의 무수한 검열 규정을 위반하거나 단순히 너무 큰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사의 웨이보 계정 정지는 그가 지난 9월 파리에서 ‘크레이지 호스’ 공연에 출연한 후 엄격히 통제되는 중국 인터넷에서 거대한 논란을 촉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짚었다.



크레이지 호스는 물랭루주, 리도쇼와 함께 파리를 대표하는 3대 쇼의 하나다.

1951년 전위예술가 알랭 베르나멩이 파리에 ‘크레이지 호스’라는 카바레를 열면서 시작된 쇼로 무용수들이 하이힐, 조명, 영상을 곁들여 춤추는 공연이다. 파리 3대 쇼 가운데 가장 노출 수위가 높은 공연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에는 내한 공

연이 성사된 바 있다.

CNN은 “리사의 공연은 보수적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며 “블랙핑크 멤버 중 유일하게 한국계가 아닌 리사는 특히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웨이보에서는 리사의 해당 쇼 출연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매우 뛰어난 재원이다. 그는 왜 크레이지 호스 쇼에 출연했나?” “계정이 더 일찍 폐쇄됐어야 한다. 리사는 크레이지 호스 쇼 출연 후에도 여전히 웨이보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다”, “나 역시 리사의 크레이지 호스 쇼 출연을 비판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계정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CNN은 소개했다.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인 지수, 제니, 로제의 웨이보 계정은 살아있다.

/ 이은정 기자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을 만들어 베트남에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 범령에 한국의 경험이 반영되면 해당 분야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와 호찌민 하수처리시설, 타이응우옌성 소각·발전시설 등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안과 베트남 공무원 교육·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에 한 장관은 당 꾸옥 카인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양자 회담도 진행했으며, 양국 기업이 합작해 설립한 박닌성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상업 운전 가능성에 착수했다.

/ 윤경준 기자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하고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베트남 상하수도 법령 제정에 한국이 참여한다.

2일 환경부는 제15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한화진

장관이 전날 베트남 건설부와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베트남 상하수도법 하위 법령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WAVE**

내 손안의 AI 친구 A.



더욱 진화된 AI 대화
나를 도와주는 똑똑한 A.I. 대화,
A.I. 프렌즈와의 감성 대화까지

개인 맞춤형 AI 추천
사용 이력, 개인 취향 기반의
정교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AI 통화 비서
통신 AI 기술로 통화 내용
자동 요약 및 스케줄 관리

* 7월 말 안드로이드 출시 예정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

하이브, 역대 최고 3분기 실적…내달 BTS 다큐 나온다

BTS 전원 재계약…“공백기용 콘텐츠 준비·2025년 ‘화양연화’ 10주년 프로젝트”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걸그룹 뉴진스의 흥행에 힘입어 3분기(7~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하이브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5천379억원과 영업이익 727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0.7%, 19.8% 증가한 것이다.

이번 3분기 실적은 하이브가 창사 이래 거둔 3분기 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3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644억원)를 12.9% 웃돌았다.

이런 실적 호조는 방탄소년단(BTS) 솔로 멤버들을 비롯해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등 소속 가수들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이 뒷받침된 덕분이라고 하이브는 분석했다.

특히 3분기에는 방탄소년단 뷔의 솔로 데뷔 앨범 ‘레이오버’(Layover)와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음반 ‘겟 업’(Get Up)이 발매돼 큰 인기를 누렸다. 이 기간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은 월드투어로 매출을 끌어올렸다.

뷔의 ‘레이오버’는 한터차트 기준 발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BTS: Yet to Come'

첫 주 판매량 210만장을 기록해 K팝 솔로 가수 신기록을 썼고, 정국은 디지털 싱글 ‘세븐’(Seve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뉴진스는 ‘겟 업’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한편, ‘슈퍼 사이’(Super Shy)·‘ETA’ 등 전곡을 히트시키는 성과를 냈다.

세븐틴은 올해 1~9월 써클차트 기준 누적 앨범 판매량 1천100만장을 기록했다.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앨범, 공연, 광고 출연 같은 ‘직접 참여형 매출’이 3천824억 원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앨범 매출은 2천64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4.4% 늘었고, 공연 매출은 869억원으로 83.9% 증가했다.

다만 MD(굿즈상품), 라이선싱, 콘텐츠, 팬클럽 등 ‘간접 참여형 매출’은 1천554억 원으로 35.0% 감소했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없었고, 관련 매출 발생 계기가 되는 이벤트가 3분기에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접 참여형 매출에는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세븐틴·엔하이픈의 투어 MD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도서 ‘비욘드 더 스토리’(BEYOND THE STORY)가 반영됐다.

한편,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3분기 평균 월 방문자수(MAU)는 약 10% 성장한 1천50만명을 기록했다. 위버스 라이브 조회 수도 10억회를 넘어서었다.

하이브는 엔하이픈이 이달 17일 다섯 번째 미니음반 ‘오렌지 블러드’(ORANGE BLOOD)를 발매하고, 앤팀도 15일 첫 정규음반을 내놓는 등 4분기에도 소속 가수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오디션 ‘더 데뷔 : 드림 아카데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넷플릭스로 공개하고, 내년 1분기 세븐틴의 레이블 플레이스를 통해 신인 보이그룹을 내놓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방탄소년단이 전속계약 재계약을 완료해 앞으로도 하이브·빅히트뮤직과 함께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25년 완전체 활동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과 아미(방탄소년단 팬)에 가장 의미 있는 앨범이었던 ‘화양연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방탄소년단 멤버 입장에 따른) 공백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콘텐츠를 준비돼 있다”며 “세븐틴은 내년 일본에서 큰 규모의 공연이 지금보다 훨씬 많기에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김희성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정

4개 LCC 인수후보 거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화물 사업을 인수할 1차 후보군으로 꼽히기 때 문이다.

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는 단번에 외형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화물 매출은 2017~2019년 1조3천억~1조4천억원 규모였다가 코로나 기간이던 2020~2022년 2조1천억~3조1천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다면 올해 상반기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출은 7천79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1.7%를 차지하며 줄어든 모습이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4개 회사 중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 운송량이 아시아나항공과 가장 근접한 회사는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다.

하지만 에어인천을 포함한 LCC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체급이 현격히 차이 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인수가 가능 하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항공포털에 따르면 에어인천의 지난 1~6월 순화물(우편물·수화물 제외) 운송량은 2만243t으로, 아시아나항공(27만9천97t)의 7.2% 수준이다. / 박경성 기자

칼럼

세계적인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대응으로 본 블루카본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염과 기름 등 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의 기후환경은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가 되면서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며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하여 세계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정정개발체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 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는 그 환경에 따라 크게 블루카본, 블랙카본, 그린카본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블랙카본은 석탄·석유 등의



강진구 회장(학도 / 논설위원)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년이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지구의 탄소 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헥타르(ha)당 자작나무 숲은 연간 이산화탄소(CO2) 흡수량은 6.8톤이며, 블루카본인 해조류와 해초류는 이산화탄소를 48톤을 흡수한다. 또한, 세계 블루카본

블루카본인 해초류의 묘종을 굴 폐각에 이식

블루카본은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다

화석연료나 나무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한다.

블루카본은 어폐류, 잘피,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은 물론 맹그로브숲, 염습지와 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블루카본은 2009년 유엔 보고서 <블루카본-강간한 해양의 탄소 포집 역할>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현재 매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9년 발표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블루카본은 탄소 흡수

업에 있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으로 블루카본 사업 전개의 속도와 확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또한, 해마다 굴폐각의 문제가 심각하다. 굴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굴 폐각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로 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배려진 굴폐각 만해도 그 양이 28만톤에 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생되는 굴 폐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업 종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 해초류가 바다의 수심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초류의 어린 종자를 굴 폐각에 대량으로 이식하여 배에서 바다에 뿌려 해초류가 바다의 밑바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2022년 11월부터 1회용품(식기류, 빨대, 면봉 등) 사용제한은 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회용품의 재질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제한을 시키는 것이다.

최근엔 1회용품의 재질에 있어서 해초류를 30~40% 정도 대체하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블루카본인 해초류의 묘종을 굴 폐각에 이식하여 양식장에서 키워서 삼면인 바다에 파종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도 있으며, 크게 성장한 해초류를 수확하여 1회용품을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지구환경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尹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총수들과 첫 비공개 만찬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그룹 총수와 별도 비공개 만찬은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네온전시관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재계와 정치권,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요 그룹 총수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현장 소통과 민심 청취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 총수들이 그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여러 번 동행한 만큼 이에 대한 ‘뒤풀이’ 차원도 있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그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성과 및 향후 활동,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형식으로 대기업 회장을 따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송원기 기자

“중동 최악 시나리오 대비”…산업부, 석유·가스수급 점검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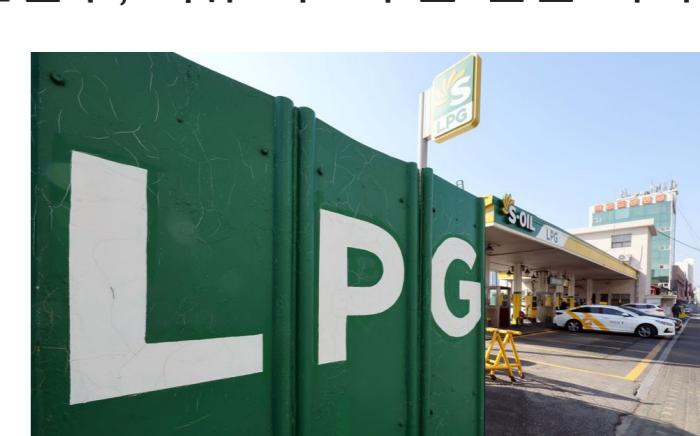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가스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석유·가스 수급 상황 및 유가 영향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석유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분쟁이 주변 산유국으로 확전하는 시나리오 등에 대비한 각 기관·업계의 비상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따라 약 8개월 분량의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 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의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연고점인 99.55달러(지난 9월 27일)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휘발유는 1천700원대, 경유는 1천6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법민 국장은 “한국은 중동산 석유·가스를 다량 수입하고 있어 이번 중동 사태 초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으나 아직 특별한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산유국 확전, 헬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어 유관기관, 업계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승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 이롭게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를 신청하세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 청년 2,000명
내용 : 수도권*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18일 ~ 10월 9일 (3주간)
신청접수 : www.shinchunghae.co.kr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지칭함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대전 전세사기 건물 36%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피해자들 “금융권 과잉대출 문제…대출내역·실행경위 밝혀야”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의 한 금융기관에서 집중으로 이뤄진 임대업자들에 대한 과잉 대출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금융권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36.51%가 대전의 A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이런 금융권의 과잉대출이 전세사기를 키웠고 이는 법적·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대전 한 건설사 대표 B씨의 가족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출 과정에서의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5월 드러난 동구 자양동 다가구주택의 신축자로, 해당 건물 1순위 근저당권을 A새마을금고로 설정하고 빌린 14억원을 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전세사기 피해 기자회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최근 대전 200채 다가구 전세사기법으로 거론된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을 B씨가 도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대출금이 나왔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A새마을금고가 배후에 있는 것 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의 대출은 조건과 신용도를 모두 간간하게 따지면서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은 기존 근저당 건이나 기대출 건 확인도 없이 승인해준 것은 금융권의 이의 불리기를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내역과 실행 경위를 밝히고, 대출 과정에 대한

행안부의 철저한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와 해당 임원은 대출 승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신축 건물에 대한 대출 심사는 토지 건물 감정가를 확인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맞춰 실행하게 된다”면서 “대출 담당자가 신용평가 등 전산 조사를 하면 대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점장, 본점 사업부, 이사진 결재까지 받아야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해명했다.

과잉 대출 지적에 대해서도 A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대전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과 승인이 많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범들이 작정하고 별인 사기에 대해 금융권도 제대로 방어하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공격적인 대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 송진영 기자

‘맨발 걷기 열풍’ 담양 대나무 생태공원에 흙길 조성

전남 담양군은 금성산성 자락의 대나무 생태공원 내 대숲 산책로에 흙길 1.5km를 이달 내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방제림에 조성한 흙길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대나무 생태공원에도 흙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나무 생태공원 흙길은 가을철 단풍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금성산

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흙길 주변 울창한 대나무 숲에는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톤치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돼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나무의 피톤치드 발생량은 소나무 보다 약 3배 높다.



이병노 군수는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흙길 조성에 정성이다”

해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최규한 기자

제1회 원주 만두축제 20만명 ‘홍행’…글로벌 축제로 나간다

원주시가 전통시장·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애심 차게 준비한 제1회 만두 축제에 20만명이 다녀가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시는 축제 기간인 지난달 28~29일 20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인 만두 축제는 구도심에 가깝고 전통시장이 밀집한 문화의 거리에서 열렸다.

방문객들은 만두 축제와 함께 중앙시장·자유시장·도래미시장 등 주변 전통시장에서 먹거리와 쇼핑을 즐기는 등 구도심 상권에 큰 활동력을 끌었다.

축제 첫날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사전에 준비한 만두가 동나는 품질 대란을 빚



기도 했다. 시는 올해 만두 축제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축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만두 축제를 즐기

기 위해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 전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만두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새만금 예산 정상화하라” 전북도의원 릴레이 단식 연말까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나선 전북도의원들이 연말까지 단식을 이어간다.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은 부처별 영액이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 삭감돼 1천479억원만 반영된 데 따른 강력한 반발의 표현이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

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이 지난 9월 5일부터 사흘간 단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5명 전원이 사흘씩 단식투쟁을 마쳤다.

이들 의원의 단식이 ‘한 바퀴’ 돌았지만, 의원들은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까지 단식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의원들의 건

서 하루씩으로 줄였다. 지난달 31일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에 이어 이달 1일은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이 바통을 넘겨받았으며 이날 김명지 교육위원장이 단식농성장에 앉았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한 샘버리 행정 책임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예산 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단식투쟁에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도민의 명예와 자존감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고 예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

/ 최경환 기자



“이디레 옵서!” 부르면 오는 ‘옵서버스’ 제주 농촌 봉봉

제주에서 31일 호출 형태의 버스인 옵서버스가 떴다. 옵서는 ‘오세요!’의 제주어이다.

이날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시연에서는 마을 어르신이 옵서버스 콜센터(☎1877-8257)에 전화를 걸어 버스를 부르자 이내 버스가 왔다.

제주도는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해 기존의 농촌 마을 정기 운행 버스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행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대(4대)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대(4대)에서 이뤄진다.

이용 시간은 수산리의 경우 오전 9시 ~오후 1시 40분,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이다. 태흥리에서는 오전 9시 10분~낮 12시 50분, 오후 6시~오후 9시 20분이다.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현금 1천 200원, 카드 1천 150원)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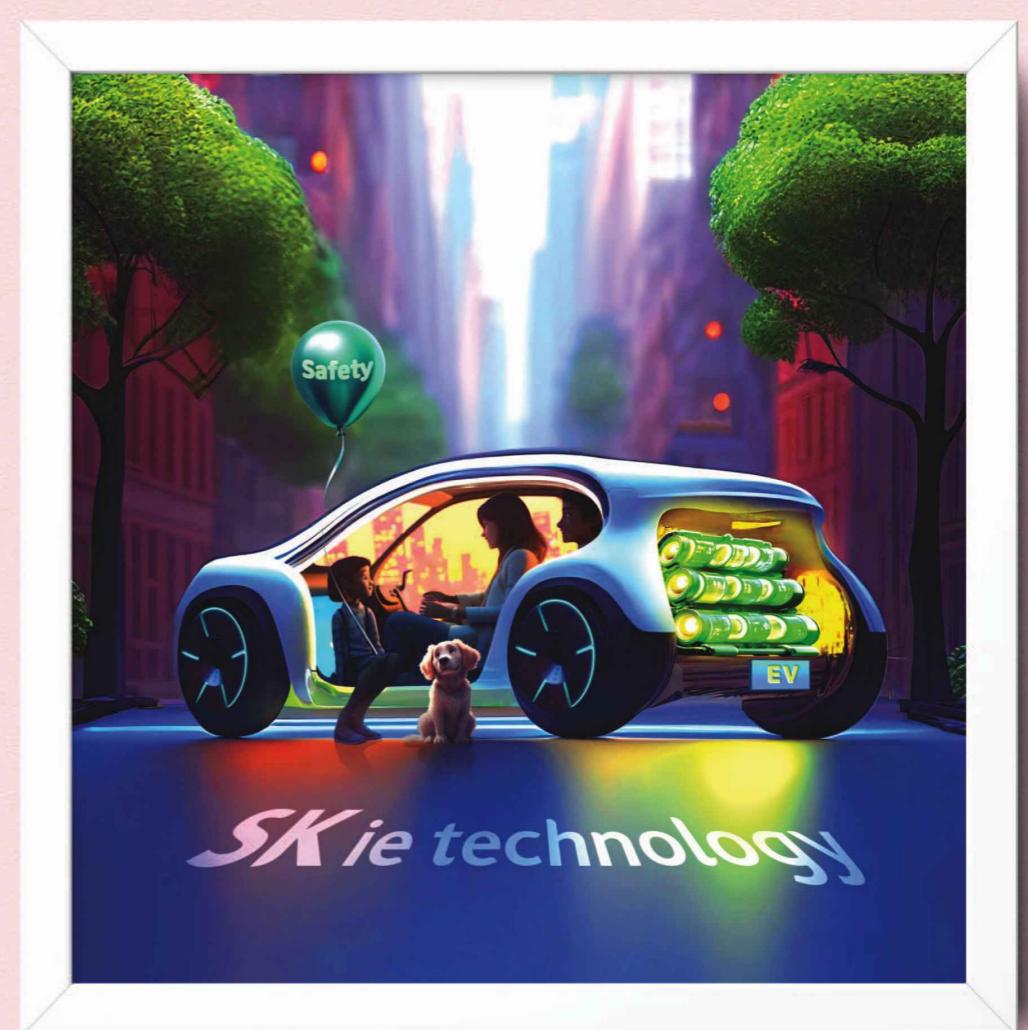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제주 교통카드를 소지한 노인의 경우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 백서연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쳐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한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고객이야기 #안심로밍 #제로프리미엄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랑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채님’

”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채님의
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

이런 생각, 김병채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제주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격차 줄인다…도·교육청 지원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무상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도와 교육청은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체택했다.

양 기관은 초등 돌봄 협력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10개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유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소요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올해 기준 무상급식비 단가는 유치원 3천790원, 어린이집 2천880원으로 910원 차이다.

이 중 이미 어린이집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친환경급식비와 NON-GMO(비 유전자변형) 식품비 부분을 제외한 격차(650원)를 해소하는 데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로 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공동 지원하고 양질의 학교 급식을 위해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는 5%, 친환경급식비는 8.7% 인상한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지역 연계형 초등 주말 돌봄센터를 비롯해 제주형 거점 통합 돌봄센터 등 제주형 돌봄모델 정착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재일제주인과 도민 기부, 해녀 모금 학교 설립 등 제주인 학교 설립 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과 정립 및 도민 자금심 고취를 위한 기획전시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특화교육과 제주 미래 신산업(청정에너지, UAM, 우주산업, 자율주행 등) 분야 학교 교육을 위해 내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등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을 추진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목표로 찾 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 20회에서 50회로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에 탈플라스틱 정책을 반영한다.

제주어 교육 필수 시간은 내년부터 학년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한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주관 행사와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시 적극적으로 흥보한다.

또한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 31개 노선에 대해 맞춤형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5번째로 열렸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안건이 논의된 자리"라며 "협의한 안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도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는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 "부산불꽃축제 인파 100만명 예상"

안전 관리 철저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오는 4일부터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해 인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와 부산시에 주문했다.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한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문을 통해 "이번 부산불꽃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빠름없이 구축하라"며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바다에서 진행되는 축제이니 해상 관람선, 방파제 등 해상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며 "화재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충분한 소방

시설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잘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교통 수송 대책과 안전 취약자 대책도 별도로 행기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주최 측이 협동으로 안전 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말했다.

또, "행사가 끝날 때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질서 유지 안내에 잘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 신지호 기자



폐광 전 화순탄광 내부

폐광 화순탄광 지하수 채워 침하 방지 화순군 "재검토해야"

폐광한 전남 화순탄광 사후 관리를 위해 지하 쟁도에 지하수를 가득 채워 넣는 방식이 추진된다.

화순군은 폐광산을 대체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광해 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중

간보고에 따르면 공단 측은 화순탄광 광해 복구 사업으로 지하 곳곳에 뚫려있는 쟁도에 지하수를 채워 넣어 지반 침하나 붕괴 등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해 복구란 광산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지하 쟁도의 경우 지하수를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인 복구 방법이다.

현재 화순탄광은 지하 19층(-523m) 까지 쟁도가 나 있는데, 쟁도 내부를 지하수

가 자연적으로 채운 뒤 차오르면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화 작업 등을 위해 연간 18

억6천900만원의 유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쟁도에 지하수를 채우지 않고 폐광 직후 상태로 유지하려면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지상으로 퍼울리고 정화해야 해 연간 87억9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지하수를 채울 때 현재 쟁도에 남아있는 지주나 레일과 같은 고정된 철제 시설물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고정된 철제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산소 절단을 해야 하는데, 화재 우려가 있고 낙반(붕괴)이나 운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석탄공사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절반 가량이 낙반과 운반 사고였다. 급경사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도 철거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 황순길 기자

울산 남구 홍보 영상 '내는 솔로'…조회 수 15만 회 인기



남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8명이 출연, 스스로 캐릭터와 상황을 설정해 촬영에 임했다.

이날 기준 1편은 14만여 회, 지난달 30일 게시된 2편은 1만여 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공서 홍보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떤 공공기관 홍보 영상보다 과급력이 있다", "후속편은 언제 나오나요" 등의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계 남영식 주무관은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구 홍보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다 패러디를 주제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재미와 정책 홍보를 함께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겠으니 고래방송국TV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동해서 고래 사체 잇따라 발견…속초해경, 혼획 경위 조사 강화

속초해경에서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혼획 사건 조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올해) 속초·고성·양양·강릉 주문진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는 83마리다.

올해에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 보호 생물 7마리, 맹크고래 9마리, 기타 고래 4마리 등 총 20마리가 혼획됐다.

이에 고래 사체가 발견될 경우 정밀검사, 혼획 경위 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혼획이 잦은 업종의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매매하는 행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벌인다.

속초해경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판매 등 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그물에 걸려 살아 있는 고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상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KB
OUR LIFE



KB증권

10년 만의 재대결...‘악연’ K리그1 포항·전북, FA컵 결승서 격돌

2013년엔 승부차기 혈투 끝에 포항이 웃어…전북은 2연패 도전

2023 하나원큐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알궂은 대진이 성사됐다.

‘디펜딩 챔피언’인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포항 스틸러스와 오는 4일 오후 2시 15분 경북 포항스틸아드에서 맞붙는다. 전북과 포항은 지난 1일 준결승전에서 각각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결승행에 성공했다.

두 팀은 이 대회에서 10년 전에도 결승전을 치렀다. 2013년 FA컵 결승에서 웃은 쪽은 포항이었다.

1-1로 정규시간을 마친 포항은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앞서 최종 승자가 됐다.

지난 시즌 대회 우승팀 전북으로서는 이때의 아픔을 털어낼 기회를 잡은 삼성이 있다. 반면 포항은 훔에서 1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1일 결승행을 확정한 후 기자회견에서 “(10년 전) 전북과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리가 우승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좋은 기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와 준결승전 골 맛을 본 김인성도 “10년 전과 같이 다시 전북과 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

포항이 훔에서 우승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북 역시 포항을 누르고 우승컵을 들고픈 열망이 크다. 리그를 대표하는 ‘명가’지만, 올 시즌 부침을 겪은 전북으로서는 FA컵을 통해 명예 회복을 꾀한다.

라이벌 울산 현대가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해 구단 사상 최초 2연패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전북은 4위까지 처져 있다. 2013년 승강제 도입 후 전북의 최종 순위가 3위 아래로 떨어진 적은 아직 없다. 더불어 포항에 10년 전 패배를 설욕한다면 대회 2연패와 함께 단독으로 FA컵

최다 우승 기록을 이루게 된다. 현재 최다 우승 기록은 전북과 수원 삼성이 함께 보유한 5회다. 전북과 포항은 10년 전뿐 아니라 최근에도 ‘악연’으로 엮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시즌 K리그1 35라운드에서 만난 두 팀은 1-1로 비겼는데, 도중 포항의 선수 교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4분 30초가량 출전자가 12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북은 11명 외 ‘무자격 선수’가 뛴 상황이라 규정에 따른 포항의 몰수패를 주장하는 반면 포항은 명단을 잘못 써넣은 실수는 인정하나 심판진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입장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몰수패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축구 팬들의 시선을 모은 두 팀이 FA컵 결승에서 다시 만나는 알궂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올 시즌 성적은 포항이 압도적 우위를 자랑한다. 포항은 정규리그 4경기에서 전북에 3승 1무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상승세는 전북이 더 가파르다. 전북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쟁겼다. 지난달 25일 3-0 쾌승을 거둔 라이언 시티(싱가포르)전을 빼도 정규리그에서 FC서울(2-0), 대구FC(2-1)를 차례로 꺾었고 포항과 지난달 28일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반면 포항은 최근 정규리그 5경기에서 4무 1패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지난 9월 16일 수원FC를 2-0으로 꺾은 후 아직 리그에서는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 감독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은 전북이 우리보다 분명히 좋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북을 압도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LG 선발 최원태 역투

한국시리즈 열쇠 쥔 LG 삼총사

“최원태·정우영·박동원”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우승의 열쇠를 쥔 삼총사로 지목한 선수는 선발 투수 최원태, 주전 포수 박동원, 그리고 핵심 사이드암 불펜 투수 정우영이다.

7경기에서 4승을 거두면 20년 만의 한 국시리즈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한국시리즈에서 염 감독이 세 선수에게 바라는 건 확실하다.

최원태의 안정된 투구, 안방 마스크를 쓸 박동원의 한 방, 그리고 1년 내내 흔들린 정우영의 구위 회복이다.

염 감독은 한국시리즈 개막을 연새 앞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상무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좀 더 넓은 잠실구장에서 한국시리즈 1, 2차전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최원태를 2차전 선발로 내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월에 개정된 KBO 리그 규정을 보면, 한국시리즈 1~2차전과 5~7차전은 정규리그 1위 팀의 흄에서 열린다. 3~4차전만 플레이오프 승자의 구장에서 치러진다.

이런 경기 방식에 따라 1차전 선발로 확정된 케이시 켈리와 최원태는 잠실에서 벌어지는 1, 2차전과 5, 6차전에 선발로 등판한다. 최원태는 잠실에서 올 시즌 4승 2패, 평균자책점 3.18로 준수했다. 0.265인 피안타율도 잠실에서는 0.227로 뚝 떨어져 잠실에서 더욱 힘을 냈다.

다만, 후반기에 3승 3패, 평균자책점 6.75로 부진했기에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던진 경험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숙제다. / 오창민 기자

염 감독은 또 “박동원이 5월의 페이스 만큼 한 방을 쳐줄 수 있다면 하위 태순의 파괴력이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홈런 20개를 친 박동원은 5월에만 9방을 몰아치며 팀 득점에 크게 기여했다.

하위 태선에 장타력 있는 타자를 배치하겠다는 건 염 감독의 올 시즌 약속이었다. 가을의 승패를 대포가 가르는 만큼 박동원의 장타력이 살아나면 LG 지뢰밭 타선의 응집력은 배가된다.

염 감독은 “정우영이 살아난다면 필승 계투조 운연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지난 해 훌드왕 정우영의 부활을 기다린다.

사이드암 투수로는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정우영은 올해 초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부터 안 좋더니 결국 정규리그를 5승 6패, 11홀드, 평균자책점 4.70으로 마감했다.

4년 연속 20홀드 도전은 물거품이 됐고, 무엇보다도 피안타율이 0.297로 크게 상승했다.

훌드왕 정우영과 작년 구원왕 고우석의 부진에도 LG는 백승현(2승 3세이브 11홀드), 유영찬(6승 3패 12홀드), 함덕주(4승 4세이브, 16홀드), 김진성(5승 1패, 4세이브, 21홀드) 새 필승 계투조로 정규리그 1위에 등극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LG 셋업맨으로 맹활약한 정우영이 구위를 되찾아 필승조로 가세한다면 LG의 허리는 더욱 두꺼워진다.

/ 오창민 기자

남자 배구 삼성화재 4연승 신바람…3연속 셋아웃 승리



4연승 신바람 낸 삼성화재 선수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4연승을 질주하고 선두 우리카드를 추격했다.

삼성화재는 1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

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3-2024 V리그 방문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세트 접수

현대캐피탈, OK금융그룹에 이어 KB손보마저 3경기 연속 셋아웃(3-0 승리)으로 따돌린 삼성화재는 시즌 4승 1패, 승점 11을 쌓아 1위 우리카드(5승 무패·승점 14)에 이어 두 번째로 승점 10을 돌파했다.

KB손보는 시즌 첫 경기에서 한국전력에 승리를 거둔 이후 4연패 높에 빠졌다.

삼성화재 주포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가 요술 같은 공격으로 4연승에 앞장섰다.

1세트에서만 13점을 퍼부은 요스바니는 2세트 21-19에서 오픈 득점을 올린 뒤 곧바로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의 백어택을 블로킹으로 차단하는 등 2세트까지 20점을 터뜨리고 펄펄 날았다.

견고한 디그로 KB손보의 공격을 견어

낸 뒤 요스바니와 박성진 양쪽 날개를 번갈아 활용한 세터 노재욱의 볼 배급도 효과적이었다.

1세트에서 백어택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KB손보와 달리 삼성화재는 1세트 7개, 2세트 6개의 시원한 후위 공격 득점을으로 KB손보의 기를 죽였다.

삼성화재는 3세트에서 16-19로 끌려가다가 요스바니의 블로킹 득점을 계기로 차근차근 점수를 좁힌 뒤 다시 비에나의 공격을 가로막은 요스바니의 블로킹으로 21-21 동점을 이뤘다.

오픈 득점으로 매치 포인트를 쌓고 백어택으로 경기를 끝낸 것도 요스바니였다. 요스바니는 블로킹 4개를 포함해 64%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바탕으로 32점을 수확했고, 박성진이 12점으로 뒤를 받쳤다.

경기 후반에는 3연속 셋아웃 승리를 기록한 삼성화재가 4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 권정석 기자

내 삶을 바꾼 물길 소양강댐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

‘대한민국 재도약’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쌓은 것은
123미터의 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양강댐을 만들었고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한 반세기
소양강댐이 다시 희망을 채웁니다.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73.10.15

소양강
희망의 미래로!

방시혁 “BTS, ‘형 믿고 한 번 더 가보겠다’며 재계약”

‘유퀴즈’ 출연…방시혁 “K팝, 라이트팬도 볼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두 번째 전원 재계약과 관련해 멤버들이 “형 믿고 한 번 더 가보겠다”고 했다는 비화를 전했다.

방 의장은 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러’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CCO(Chief Creative Officer)와 함께 출연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아티스트에게는 선택지가 많다”며 “그런데도 저와의 재계약을 선택해줬다는 것 자체가 매니지먼트와 레이블의 수장으로서 방탄소년단과 일해온 역사를 인정받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치하 받은 것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 의장은 “사실 (재계약의) 대부분의 과정은 조율하는 시간”이라며 “멤버들이 재계약 의사를 밝힌 뒤) 20년간 매니저먼트를 한 아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만”이라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러’에 출연한 박진영(중앙 좌)과 방시혁(중앙 우)

“유명해서 유명한 전략을 썼다. 남미 반응을 뉴욕에 알리면, (멤버들이) 뉴욕에 떨어질 때쯤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되돌아봤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 데뷔 당시 회사 빚이 백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며 “그래도 나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불타오르네”가 글로벌에서 터지고 구글 반응을 분석하니 이 추세대로 나가면 전성기 월다렉션 급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며 “나중에 멤버들이 시상식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방 PD님이 노망난 줄 알았다’고 하더라. 그 뒤부터는 운명이 끌고 갔다”고 방탄소년단 성공 신화를 회고했다.

방 의장은 박진영 CCO와 20년 동고동락하며 음악적 동반자로 지냈다. 이들은 박지윤, 지오디(god), 비 등의 술한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함께 미국 진출에 도전했지만 박 CCO가 포개 놓은 양발에서 불거진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방 의장이 JYP를 나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지금의 하이브)를 세우게 됐다는 일화도 공개됐다.

방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일이 없었으면 K팝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너스레도 떨었다. 방 의장은 자신이 주장한 바 있는 ‘K팝 위기론’에 대한 생각도 밝히며 “라이트팬도 볼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요 시장에서의 지표 하락이 보이는 게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근간은 ‘굉장히 강렬한 팬덤의 소비’”라며 “K팝 팬은 강렬한 몰입도와 집중적인 소비를 보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는 확장성의 한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 김희준 기자



돌아온 개그콘서트, 코너 시연하는 출연자들

3년 만에 돌아온 개그콘서트 “새로운 피 수혈…과거와 달라”

유튜버·신인들 주축

“신인들,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개그콘서트’에서 해주셨던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 얼굴이 많아졌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김상미 CP)

2020년 6월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의 곁을 떠났던 KBS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오랜 공백을 깨고 1일 공개 녹화를 진행했다.

제작발표회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윤형빈은 “KBS의 정규 프로그램에 신인을 기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CP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신인을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CP는 또 ‘개그콘서트’의 공백 기간에 크게 성장한 유튜브의 코미디 콘텐츠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유튜브나 OTT(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의 ‘쎈’ 코미디와 달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봐도 어색해지는 순간이 없이 볼 수 있는 코미디가 있다면 세대 갈등이 적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금쪽 유치원’ ‘니통의 인간극장’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등 세 코너가 공개됐다.

각각 ‘금쪽 유치원’은 저출산 시대 어린이가 귀해지면서 전교생이 두 명뿐인 유치원의 이야기를 다룬다.

‘니통의 인간극장’은 필리핀 출신 며느리 니통 부부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코너이고,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는 소개팅을 소재로 한다. 특히 ‘니통의 인간극장’은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코미디 채널 ‘폭씨네’의 김지영과 박형민이 출연해 유튜브에서의 캐릭터를 무대에서 선보인다.

코미디언들은 몇 년 만에 공개 코미디 녹화에 임하는 소감을 전했다.

/ 이은정 기자

정지영 감독 ‘소년들’ 2위로 출발…‘그대들은’ 부동의 1위

정지영 감독의 새 영화 ‘소년들’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로 진입했다.

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년들’은 개봉일인 전날 3만 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4.3%)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이 영화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누명을 쓴 소년들을 구하려는 형사 준철(설경구 분)의 분투를 그렸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4만9천여 명(32.2%)을 동원해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누적 관객 수는 111만여 명이 됐다.

이 작품은 지난달 25일 개봉 이후 관객의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렸지만, 한 차례도 정상을 빼앗기지 않고 있



다.

미야자키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이 영화는 소년 ‘마히토’가 신비한 와가리를 만나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신혜선이 주연한 액션 영화 ‘용감한 시민’ 역시 8천여 명(5.0%)을 모으는데 그쳐 5위로 하락했다. 누적 관객 수는 21만여 명이다.

/ 강희수 기자

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강남 경찰서에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대표 측은 “전홍준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 대표와 총괄이사 백진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언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밝혔다. 안 대표 측은 다만 “멤버들과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받은 안 대표로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답변해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 흥현주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JIN 삼진제약

맞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솔루션
게보린® 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게보린® 클다운 정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게보린® 릴랙스

K-콘텐츠,
단디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